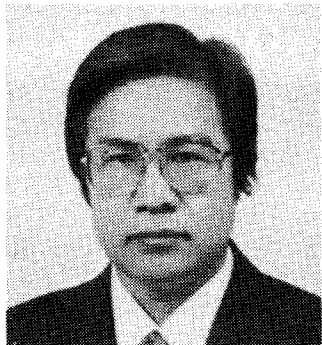


교육특집 > 한국대학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향



원 응 순

<교수협의회 회장>

1. 대학의 역사와 이념

역사적으로 대학의 기원을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아카데미'에서 찾을 수 있고 동양에서는 중국 주(周)나라의 태학(太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에서 대학은 12세기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대학과 프랑스의 파리(Paris)대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나 주교의 기능을 함께 맡아왔으나 이러한 종교적 내지 봉건주의적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시민정신에 따라 여러 형태의 길드(guild)조직과 같은 협동조합이 유행했는데 볼로냐 대학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 학생단(Universitas)이 중심된 학생자치대학 'University of Students'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반하여 12세기 말경에 설립된 '파리' 대학은 교수중심의 대학으로 교수들이 학부(faculte)를 중심으로 완전히 독립된 법인체로 발전되었다. 위의 두 조직인 학생단(Universitas)과 교수단(Collegium)에서 종합대학(Universitas)과 단과대학(College)의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얼마후 영국의 옥스포드(Oxford)는 파리대학을, 13세기 초에 케임브리지(Cambridge)대학은 옥스포드 대학을 각각 모방하여 설립되었다. 이 옥스포드(Cambridge)대학은 길드조합적인 학문집단으로 존재하면서 독자적인 재판권과 함께 자치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들 대학은 문예학부,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문예학부 과정을 수료한 학생만이 신학, 법학, 의학부에 진학하는 체제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학 역사는 어떠한가. 오늘날 150만명의 대학생들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에는 일반대학교 1개에 전문학교 25개였고 그 학교의 학생수는 남부한을 모두 합하여 7천8백19명이었다. (中敎研 참조, 1967)

그 당시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 하에서 한국인 우민화정책 실시로 우리나라사람의 고등교육의 기회는 극도로 억제되어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김관수교수의 글을 인용하면 그 당시의 한의국인이 신랄하게 다음과 같이 비판한 것을 볼 수 있다.

"2천4백만의 인구를 가진 한

나라에서 일반대학이 하나뿐이고, 성인형무소는 15개, 소년교도소 3개, 정치범(독립운동가)을 수용한 특수형무소는 7개의 곳에 11개의 분소가 있었다"

민족의 해방과 함께 파죽지세로 대학교육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터져나와 45년을 지나온 1991년 시점에서의 고등교육 기관의 수와 학생수는 놀라운 결과를 이룩했다.

우리나라 대학생수가 1945년에는 8천명 미만에서 1991년 시점 150만명으로 약200배의 증가를 보인 것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다시 인구 만명당 대학생 수로 살펴보면 미국 5백17명, 한국 3백73명, 서독 2백55명, 프랑스 2백36명, 일본 1백99명, 소련과 영국이 각각 181명선이다. (한국대학 교수협의회, p. 9)

해방후 우리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놀라운 현상이 많지만 교육인구의 폭발적 증가 현상이 그 으뜸이라 하겠다. 그 중에도 고등교육인구의 팽창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인구당 박사학위 소지자 수로도 세계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대학의 이념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대학은 그 규모에 있어서만 커다란 변화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이념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1세기 반전에 뉴우만(Cardinal Newman)은 그의 '대학의 이념'이란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모든 지식과 과학, 사실과 원리, 탐구와 발견, 실험과 사색의 높은 수호력(守護力)이다. 대학은 지식의 영역을 구축하고 각 분야가 서로 침략하거나 예측하지 않게 한다"

뉴우만은 인문지식을 존중하면서 '유익한 지식'이란 '쓰레기 더미'라고 했다. 이것은 지식이 인류의 이익과 유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베이컨(F. Bacon)의 지식의 실용성에 반기를 든 것이었다. 다시 뉴우만은 대학교육의 목적은 "사회적 지성적 풍조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정신을 함양하고 국민기풍을 정화하고 대중의 열광주의에 대해서 환원력을 제공하고 대중의 열광에 대해서 확고한 목적을 제시하고 시대의 이념을 풍부하게 정화하고 사생활의 관계를 세련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이처럼 아름다운 말로 대학의 이념과 목적이 묘사되고 있을 때 이 세계는 이미 산산이 깨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뉴우만이 대학의 이념을 쓴 1852년에는 독일의 여러 대학들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과학이 도덕철학 대신 자리하게 되었고 연구가 교수대신 자리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 있어서 민주적, 산업적, 과학적 혁명이 이미 진행되었던 것이다. 플렉스너(A. Flexner)의 말을 빌리면 '현대 대학의 이념'이 탄생된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대학은 주어진 시대의 일반적 사회조직의 핵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한다..." 대학

은 떨어져 있는 어떤 것. 역사적인 어떤 것. 다소 새로운 세력과 영향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적게 자기를 굽히는 것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은 그 시대의 표현이요 또한 동시에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가지로 작용하는 영향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이제 대학은 뉴우만이 말했던 자연질서에 있어서의 영원한 진리 대신에 새로운 것의 발견이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대학은 지식의 추구

실 대학 민주화의 요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줄곧 요구되어 왔으며 1987년에 와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명문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나 아직도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의 비민주적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대학교육과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자.

지난 25년 이상 수차례에 걸쳐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어느나라에서도 볼수 없었던 놀랄만한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그 원인은 대학으로부터 '양질의 노동력'을 최대한 공급받았기 때문

점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육인구는 소수 엘리트 양성단체를 벗어나 고등교육 대중화 단계에 들어와 있다.

이같은 교육인구 증가의 파급 효과는 상업사회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수행되어온 경제개발과정에서 고급인력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결과 고등교육의 양질이 수반되지 못한 단순한 수량적 증가는 국민경제력의 피해를 초래하게도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은 경제발전에서 고등인력의 수요증대에 따른 단순한 학과 증설과 학생수의 증가에만 관심을 두었고 교육의 양

면의식 그리고 문화·예술과 같은 일반교양의 향상에 그 일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사회발전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더욱이 그 발전 주체들을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만큼 대학은 그 안의 구성원간의 관계와 외부의 사회 집단과의 관계에서 우선 갈등없는 발전을 이룩해야 된다고 본다. 하나의 작은 사회로서 대학은 교수·학생·직원 또는 재단이라는 4자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사회에서 이 대학구성원의 4자 구성원중에 하나에 불과한 총장이나 재단을 대학 그 자체와 동일시하고 있는

반일 뿐 아니라 학식과 덕망을 갖춘 교수의 민주적 대표여야 한다고 총장은 총장은 교육부의 행정적 하부기관이라기 보다는 대학의 3자의 대표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사회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의 구성원들은 외부사회에 대하여 하나의 공통적 임무를 담담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하겠다. 그것은 대학이 갖고 있는 학문적 자유와 지식인적 양심에 따라 사회전반에 대해 올바른 비판과 충고 그리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III. 대학의 민주화

대학의 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 실체는 점점 이리송하게 안개속에 감추어 지곤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먼저 민주주의의 전통적 원리를 생각할 때 '법의 지배'라는 것이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지만 사람들은 그 자체를 구속으로 느낄 뿐 민주주의의 전통적 원리를 생각지 않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학의 민주화라 말할때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은 옛날 대학형성기에 누렸던 대학의 자유와 자치에 대한 낭만적 향수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의 민주화를 말하면서 12세기나 13세기의 '자치대학'에서 누렸던 자유와 자치를 원한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이거나 이율배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학의 자유와 자율은 귀족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사(大學史)에서 보면 대학의 자유와 자치가 앞에서 언급한 귀족주의의 그것과 다른 게 주장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 독일의 '베르린' 대학에서 부터이다. 유럽에서의 독일의 형편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그래서 독일의 관료주의 학자들은 그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상적인 대학상을 만들어 냈다. 이들에 의해 제공된 발상에 따라 독일정부가 창설한 인위적 대학으로서의 '베르린'대학은 전통적인 귀족주의의 자연발생적 대학과는 달리 근대

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가르침에 틀림없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대학의 민주화는 대학이라는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지배되고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대학의 민주화가 치외법적 자유와 자치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대학의 구성원간의 합의를 얻어 시행하는 것이 대학의 민주화이긴 하지만 이때의 대학 내부구성원만으로 하기 힘들게 되는 원인은 현대사회에서의 대학은 바깥 사회의 구성원과의 관계없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갈등과 충돌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갈등과 충돌은 모두 상호불신에 기인된 것으로 대학 민주화의 근본적인 결말들이 되고 있다.

IV. 발전에 대한 예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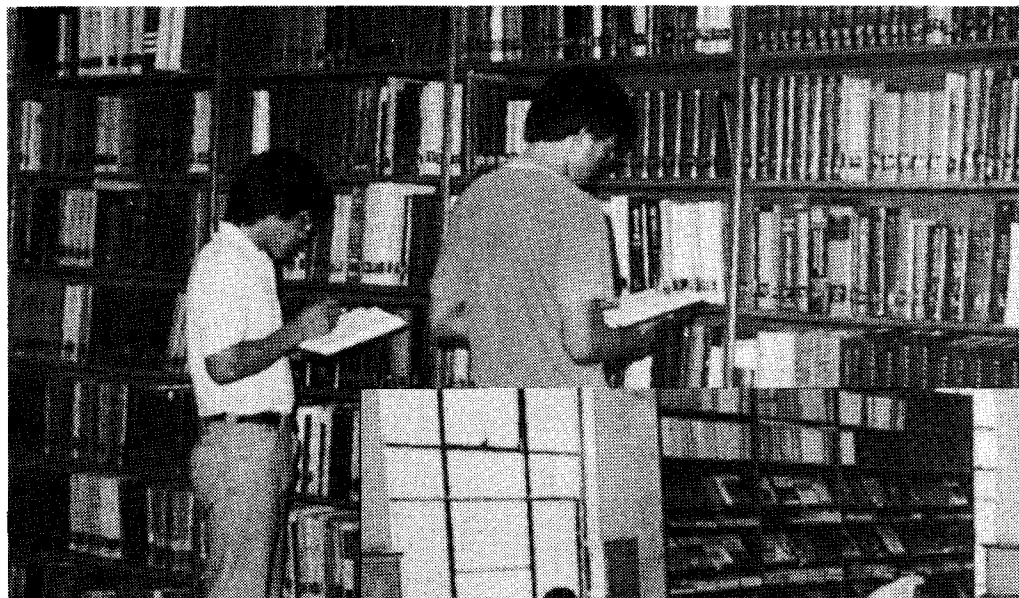
우리나라대학(본교를 포함하여)들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해방 이후 계속적으로 대학인구만 팽창하였을 뿐 질의 향상을 뒷받침하지 못한 교육정책과 대학 스스로가 자기 관리에 무능했던 결과의 모습이다. 대학진학을 세계2위라는 허물을 한꺼풀만 벗기면 우리대학은 (공부안하고 연구 못하는 대학)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사회변화는 빨라지고 국제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이시대에 우리대학들은 무기력상태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대학의 강요실은 경쟁과 평가의 긴장감을 잃은 지 오래이다. 일간신문(중앙일보 2월7일자)에 따르면 공부를 안해도 졸업할 수 있는 대학생, 10년전 강의록을 윤색하기 바쁜 교수, 학생들의 호기심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일시제도에 따라 교수출처를 변경되는 학사관리규정 등을 꼬집고 있다.

또한 계속해서 1백21개대학(교육대학을 제외)중 98개대학이 일반대학원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학원 설치 기준조차 모호하다고 평한다. 각종 지표에 나타난 우리대학의 현주소는 바로 우리대학의 교육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교수확보율은 평균 70%선이며 '일본'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50%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설확보 45%선을 유지하고 있고 도서관의 장서보유도 미국에 비해 10%에 지나지 않고있다. 교수들의 연구여건은 한마디로 황폐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수강의 평가제도, 교수정년보장제도의 개선, 박사학위제도의 공신력의 문제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끝으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구성원들간의 '불신'을 씻어내고 '믿음'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육부, 재단, 학교, 교수, 학생, 직원 모두는 자기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두가 반성과 결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양적팽창 지향속 사장된 교육 현실



와, 문제의 해결과 참으로 높은 수준에 있어서의 인간의 성취와 훈련의 비판적 사용에 의식적으로 현실하는 기관이 된 것이다.

II. 한국 대학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구조에서는 정치를 떠난 교육, 경제, 사회, 문화의 문제만 존재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의 요구는 곧 필연적으로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과거의 정치세력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집단인 대학교에 대하여 '중립성'을 지키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무관심을 주입시켰으며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미약하다는 핑계로 독재정치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 말에 와서 정치권력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대학의 민주화와 자주적 운영을 확립하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점차 대학의 자율권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치발전이 대학발전과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반대로 대학의 민주화의 발전이 곧 우리나라 정치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사

이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발전과 경제발전은 상호보완적인 셈이다. 그것은 대학교육발전에 의하여 노동의 질적 개선과 기술의 진보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교육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분을 측정한 결과가 1960년~1974년 기간에 평균 0.52%, 1970년~1980년의 기간에 평균 0.8%에 이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3, p73) 이같은 위기의 수치가 나타내 주듯이 60년대에는 중등교육의 확충에 기인하고, 70년대에는 고등교육의 확충에 따른 결과임을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해방을 기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교수요원 확보와 교육시설 확충 등과 같은 교육환경개선 개선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육부나 대학재단 모두의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측면에서 대학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보자.

대학이라는 집단도 하나의 작은 사회와 같다. 대학은 사회발전 전반에 미치는 근본 동인의 일부로서 의미있는 역사적 역할을 해낸다. 또한 대학은 발전이전의 일상적 사회구조전반에 미치는 지식과 기능 및 건강할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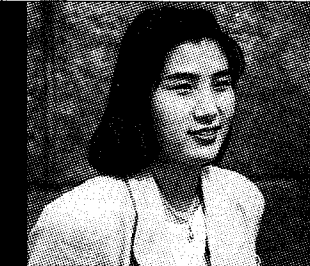
를 진다. 직원은 이들 교수와 학생의 학문전수와 인격적 성장이란 대학운영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보조적,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일차적 임무로 한다. 그렇다고 직원이 교수나 학생보다 인격적으로나 신분상으로 하위직이라는 뜻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총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위치에 선다. 현행 제도상 총장은 대학운영을 관장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니고 대외적으로 대학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고 있으며 대학사회구성원의 이상적 관점에서 보면 총장은 대학사회의 행정수

대학 민주와 자율성 확보·교육환경 개선 등 문제 산적 대학의 3주체인 교수·학생·직원 공동 노력 필요

를 진다. 직원은 이들 교수와 학생의 학문전수와 인격적 성장이란 대학운영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보조적,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일차적 임무로 한다. 그렇다고 직원이 교수나 학생보다 인격적으로나 신분상으로 하위직이라는 뜻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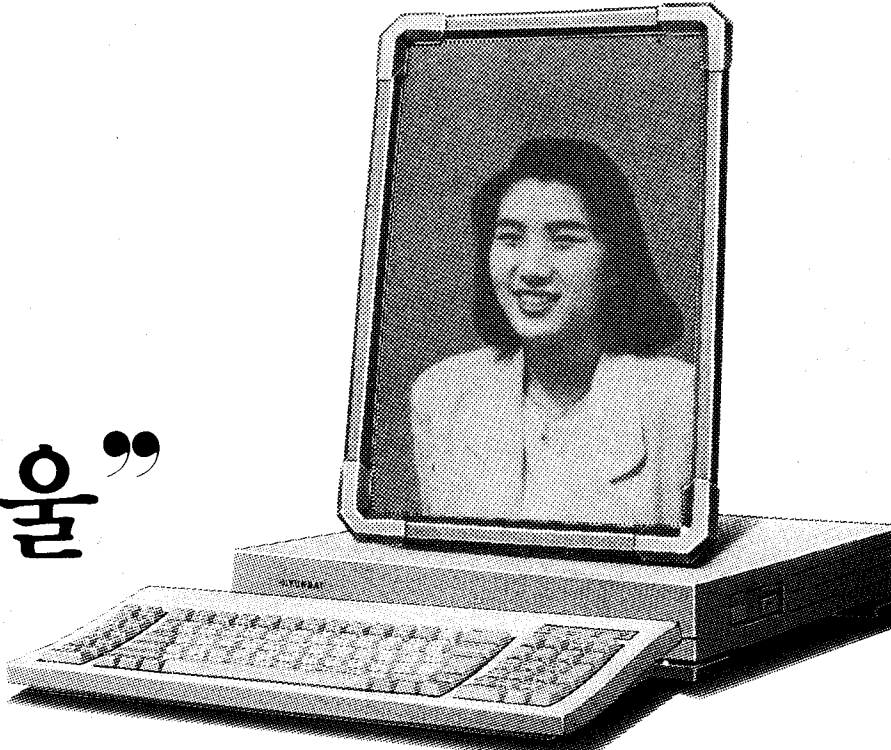
총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위치에 선다. 현행 제도상 총장은 대학운영을 관장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니고 대외적으로 대학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고 있으며 대학사회구성원의 이상적 관점에서 보면 총장은 대학사회의 행정수



1991년 1월 입사
마케팅부 조사기획 담당

오 경 화

오경화氏의 “아침마다 만나는 까만 거울”



아침, 부당한 사무실에서 -

아침 인사가 오가는 활기찬 사무실 -
오늘도 나는 퍼스널컴퓨터 앞에 앉아
의자를 바짝 끌어당긴다.
전원을 넣지 않은 까만 모니터는
매일 아침 마주하는 친근한 거울,
그 위로 비치는 지난날의 모습을...

수업료를 주는 특별한 학교 -

큰 맘 먹고 밀어넣은 입사지원서가
합격통지서로 되돌아 온 1991년 1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설레임도 잠깐,
회사는 엄청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다.
전산교육, 토목강좌, 영어회화, AFKN청취력...
내게 있어 회사는 도리어 수업료를 주며 가르치는
이주 특별한 학교였다.

회사가 내게 준 첫번째 일 -

“소미자는 어떤 소형차를 원하는가?”
이것이 회사가 내게 던진 첫번째 질문이자 임무였다.
「 소형 신차종 개발을 위한 소미자 조사」 -
나와 우리팀 5명은 최선을 다했고
만 3개월만에 제본을 끝낸 결과보고서가
마침내 두툼한 한편의 책이 되어 나왔다.
그날의 가슴 벅찬 기분이란!

컴퓨터의 전원을 넣으며 -

컴퓨터의 전원스위치를 넣으며
까만 모니터에서 사라져가는 얼굴에 묻는다.
‘나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나?’
그리고 자신있게 대답한다.
‘나는 현대자동차라는 거대한 법정의
방향기를 쥐고 있는 조타수이고
우리의 배는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 라고.

우리의 차, 세계의 차

現代自動車